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분석: 2003-2008

오복자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in Korea: 2003-2008

Oh, Pok J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the contents and trend of published research in oncology nursing during the past five year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Methods:** Using the key words “cancer”, “cancer patients”, and “tumor”, 391 nursing research published from 2003 to 2008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Results:** 1) Three hundred fifty-five (90.8%) of the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 whereas most studies were descriptive in nature. 2)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were cancer patients with mixed diagnosis (36.4%) and breast cancer patients (20.0%). 3)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28.9%), educational program (25.6%), and psycho-social and spiritual program (16.7%)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nursing interventions. Most frequently measured outcome variables were psycho, socio, and spiritual factors (38.8%), symptoms (28.2%) and physiological factors (14.6%). 4)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were identified as quality of life, fatigue, coping, pain, anxiety, anorexia,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number of published research in oncology nursing in Korea has been increased. It is suggested to conduct international studies to develop, compare, and replicate nursing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cancer in future. Increasing funding, establishing research infrastructure, and removing methodological challenges are warranted for better research environment.

Key Words: Cancer, Nursing, Research, Review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추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진단기술의 발전 및 통계 방법의 진전 등으로 암발생률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암환자를 간호하는 임상실무는 더욱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다.

암환자 간호는 임상실무에서 주요 특정 간호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임상실무에 근간이 될 수 있다. 종양연구는 2001년 대한종양간호학회지의 출간 이후 발표가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종양연구들은 종양간호학회지가 대한간호학회지 및 한국간호과학회 소속 학회지에 비해 늦게 창간되었고,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늦게 선정됨에 따라 종양간호학회지 이외 간호 학술지에 많이 발표되어 왔다.

임상실무의 과학적인 기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¹⁾ 현재 간호연구는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나, 생명 의학 분야의 학문에 비한다면 여전히 발달단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 실무에서 연구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연구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²⁾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특정분야나 연구주제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시행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련화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³⁾ 또한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근거기반의 간호중재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다.

주요어 : 종양간호, 연구, 분석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연구진흥기금에 의해 수행됨.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Pok Ja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6-12 Gongnung 2-dong,

Nowon-gu, Seoul 130-650, Korea

Tel: 82-2-3399-1589 Fax: 82-2-3399-1594 E-mail: ohpj@syu.ac.kr

투 고 일 : 2009년 12월 20일 심사위원회일 : 2009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월 25일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선행 연구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미국의 경우 Malassiotis 등²⁾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중양간호연구 619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경향과 질적 수준을 보고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Tomson scientific's web에 있는 문헌을 근거로 분석하여 유럽에서 발간되는 중양간호연구가 미국보다 출판건수나 인용정도에서 우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⁴⁾ 국내에서는 Lim과 Hong⁵⁾의 중양간호연구 중 실험연구 25편에 대하여 간호중재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여 임상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제시하였고, Choi 등³⁾이 1980년부터 1998년 2월까지 출판된 국내 중양간호연구 149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중양간호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Chung 등⁶⁾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양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93편에 대한 논문주제와 경향을 분석한 바 있으나 중양학회지에 한하여 분석되어 전체 우리나라 중양간호연구의 경향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1998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만 5년간 수행한 선행연구 Oh⁷⁾에 이어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만 5년간의 국내중양간호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양간호연구의 동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연구 기금 수혜여부 및 제1저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간호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제시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중양간호연구의 총체적인 주제와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중양연구의 방향 제시와 관련연구의 중복연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양간호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고 추후 중양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 1) 연도 별 중양연구의 출처 및 연구 설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년도에 따른 연구대상자를 분류한다.
- 3) 실험연구의 간호중재와 결과변수 빈도를 확인한다.
- 4) 연구기금 수혜여부, 제1저자 및 자료수집 방법을 확인한다.
- 5) 중양연구의 주요개념과 주제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행된 중양간호연구 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우리나라 간호학 석·박사학위 논문 233편과 우리나라 주요 간호학회지인 대한간호학회지,⁸⁾ 성인간호학회지,⁹⁾ 아동간호학회지,¹⁰⁾ 여성간호학회지¹¹⁾ 및 중양간호학회지¹²⁾에 게재된 암환자 관련논문 158편을 포함함 총 39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학위논문의 경우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실¹³⁾에서 “암”, “암환자”, “중양”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해당 논문을 확인하였다. 검색은 논문은 총 237편이었는데 이중 4편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었으므로 제외하고 233편을 분석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는 해당학회지의 사이트 자료실에서 동일한 검색어로 확인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초록을 출력하여 평가하였으며 학술지의 논문은 초록과 더불어 필요시엔 원문으로 평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루어 졌다.

4.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의 분석기준은 선행연구 Choi 등³⁾과 Malassiotis 등²⁾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 1) 연구논문발표년도: 1998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출처: 학위논문과 학술지게재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단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은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설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및 Q방법론으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의 경우 실험설계와 비실험 설계로 분류하였다. 실험설계는 유사실험설계와 원시실험설계로 분류하고, 비실험설계는 기술적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 비교연구, 사례연구 및 방법론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방법론적 연구에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와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 등을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 혼종모형, 내용분석 및 근거이론연구로 분류하였다. Q 방법론은 양적연구이긴 하지만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추출하는 방법이므로 특성상 따로 분석하였다.
- 4)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크게 암환자와 비환자로 분류하였다. 암환자는 다시 아동, 성인 환자 및 진단명별로 분류하였다. 동일연구에서 대상자가 환자와 비환자 군이 있을 때 각각 분류하였다. 비환자의 경우는 다양한 대상자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간호사, 의사, 가족, 지역주민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였다.
- 5) 실험연구: 사용된 간호중재별, 결과변수 빈도로 분류하였다.

6) 종양연구의 주제: 연구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상관관계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주요어는 그룹화한 다음 카테고리로 묶었다.

7) 연구기금 수혜여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 연구기금 출처와 수혜유무를 확인하였다.

8) 제1저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확인하였다.

게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종양간호학회지 52편(32.9%), 그 다음 대한간호학회지 40편(25.3%), 성인간호학회지 37편(23.4%)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논문편수는 2006년에 가장 많이 발간되었고, 매년 평균 65.1권이 나오고 있었다(Table 1).

연구 설계별로는 양적연구가 총 355편(90.8%), 질적연구 34편(8.7%), Q방법론연구 2편(0.5%)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는 실험연구가 88편(24.8%), 비실험연구 267편(75.2%)으로 비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연구는 유사실험설계가 80편(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실험연구에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154편(5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상관관계 연구 81편(30.5%), 방법론적연구 21편(7.9%), 비교연구 9편(3.4%)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총 34편으로 현상학 연구가 12편(3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내용분석이 10편(29.4%)이었다(Table 2).

연구 결과

1. 연구 출처 및 유형

암 관련 간호연구의 출처는 학위논문 233편(59.6%), 학술지 게재 논문 158편(40.4%)으로 학위논문이 많았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이 198편으로 학위논문의 8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35편(15.0%)에 불과하였다. 학술지

Table 1. Sources of cancer nursing research by year

(N=391)

Year	Thesis for degree (n=233, 59.6%)		Journals of cancer nursing research publications (n=158, 40.4%)					Total
	Master	Doctor	JKAN	JKAAN	JKON	KJWHN	KJCHN	
2003	41	7	7	7	6	4	0	72
2004	59	9	10	7	11	3	1	100
2005	11	4	7	5	10	3	4	44
2006	49	13	8	12	10	6	4	102
2007	38	2	7	4	10	4	0	65
2008	0	0	1	2	5	0	0	8
Total	198 (85.0)	35 (15.0)	40 (25.3)	37 (23.4)	52 (32.9)	20 (12.7)	9 (5.7)	391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ON,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KJWH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CH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Table 2. Types of cancer nursing research design by year

(N=391)

			Year						Subtotal n (%)	Total n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Quantitative research (n=355)	Exp. design (n=88)	Quasi	12	17	9	26	14	2	80 (90.9)	80 (20.5)
		Pre	1	3	0	2	1	1	8 (9.1)	8 (2.0)
	Non-Exp. design (n=267)	Survey	30	49	13	39	22	1	154 (57.7)	154 (39.4)
		Correlational	16	19	13	17	13	3	81 (30.3)	81 (20.7)
		Comparative	1	0	3	0	5	0	9 (3.4)	9 (2.3)
		Methodological	4	4	3	6	4	0	21 (7.9)	21 (5.4)
		Case study	0	0	0	1	1	0	2 (0.7)	2 (0.5)
Qualitative research (n=34)	Phenomenology	5	3	1	1	1	1	12 (35.3)	12 (3.1)	
	Grounded theory	0	3	0	0	1	0	4 (11.8)	4 (1.0)	
	Hybrid model	1	1	0	1	0	0	3 (8.8)	3 (0.8)	
	Content analysis	0	0	2	6	2	0	10 (29.4)	10 (2.6)	
	Focused group	0	1	0	2	1	0	4 (11.8)	4 (1.0)	
Q-methodology (n=2)	Others	1	0	0	0	0	0	1 (2.9)	1 (0.2)	
		1	0	0	1	0	0	2	2 (0.5)	
	Total n (%)		72 (18.4)	100 (25.6)	44 (11.3)	102 (26.1)	65 (16.6)	8 (2.5)	391	

2. 연구 대상자

우리나라 암 관련 간호연구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258편(69.9%), 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4편(28.2%), 기타연구는 7편(1.9%)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성인 암환자 대상의 연구가 244편(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동 대상의 연구는 전체에서 14편(3.8%)에 불과하였다. 환자가 아닌 연구대상자로는 간호사가 47편(45.2%), 가족이 34편(32.7%)으로 많았고 그 다음 지역주민 20편(19.2%) 순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명의 분류 없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2편(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명별 암환자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대상연구가 56편(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유형별 환자에서는 항암화학요법 대상자 연구가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 규모는 4-1,581명으로 나타났으며, 31-50명군이 55 (13.3%), 11-30명군이 52 (1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91-110명군이 많았다.

Table 3. Nursing interventions in experimental research

(N=90)

Key concept n (%)	Nursing interventions		n (%)	
Complimentary alternative therapy 26 (28.9)	Massage (15)	Foot reflexo massage	9 (10.0)	
		Hand massage	4 (4.4)	
		Aroma massage	1 (1.1)	
		Hand reflexo massage	1 (1.1)	
		Dynamic imagery	1 (1.1)	
		Guided imagery	1 (1.1)	
	Imagery (2)	Nei-guan accpressure	4 (4.4)	
		Music therapy	2 (2.2)	
		Aromatherapy	2 (2.2)	
		Taping therapy	1 (1.1)	
		Subtotal	26 (28.9)	
		Psycho education program 23 (25.6)	Nursing education program	6 (6.7)
			Providing information	8 (8.9)
Web-based education	1 (1.1)			
Breast self-examination education	3 (3.3)			
Early screening	3 (3.3)			
Coping program	1 (1.1)			
Stress management program	1 (1.1)			
Subtotal	23 (25.6)			
Psycho social spiritual intervention 15 (16.7)	Spiritual intervention	3 (3.3)		
	Forgiveness	2 (2.2)		
	Hope	2 (2.2)		
	Self-efficacy	3 (3.3)		
	Follow-up	2 (2.2)		
	Integrative intervention	1 (1.1)		
	Family support	1 (1.1)		
Interaction	1 (1.1)			
Subtotal	15 (16.7)			
Exercise program 11 (12.2)	Exercise program	6 (6.7)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4 (4.4)		
	Abdominal breathing training	1 (1.1)		
	Subtotal	11 (12.2)		
Symptom management 9 (10.0)	Mouth care	4 (4.4)		
	Analgesics	1 (1.1)		
	Lymphedema	1 (1.1)		
	Constipation intervention	1 (1.1)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1 (1.1)		
	Others	1 (1.1)		
	Subtotal	9 (10.0)		
Home care 2 (2.2)	Hospice care	1 (1.1)		
	Home care	1 (1.1)		
	Subtotal	2 (2.2)		
Others		4 (4.4)		

3. 실험연구의 간호중재와 결과변수

실험연구는 총 90편으로 간호중재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대체보완요법 관련 간호중재가 26편(2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호교육 프로그램 23편 (25.6%), 심리사회영적 중재 15편(16.7%), 운동프로그램 11편, 증상관리 9편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실험연구의 결과변수(종속변수)는 1편의 연구에서 1개 이상 인 경우가 있어 총 103개 변수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결과변수는 심리사회적변수로 40편(38.8%)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증상관리 29편(28.2%), 생리적 변수 15편(14.6%)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연구 저자

본 연구대상 391편의 종양간호연구 중 학위논문을 제외한 158편에서 저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저자를 조사한 결과 교수가 112명(6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호사 30명(17.8%), 대학원생 16명(9.5%)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제1저자인 경우 교신저자는 간호사가 4명(13.3%), 교수가 26명 (86.7%)를 차지했다. 대학원생이 제1저자인 경우 교신저자는 대학원생이 6명(37.5%), 교수가 10명(62.5%)으로 나타났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 391편의 종양간호연구에서 총 457개의 자료수집 방법이 확인되었다. 질문지방법이 309개(6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면담 63개(13.8%), 차트 및 자료분석 29개(6.4%), 생리적 계측 24개(5.3%), 문헌고찰 20개(4.4%), 관찰 11개(2.2%) 순으로 많았다.

6. 연구비 수혜

본 연구 대상 391편의 종양간호연구 중 학위논문을 제외한 158편에서 연구비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편(17.9%)이 연구비를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출처는 대학교의 연구 기금이 46편(6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금이 16편(22.9%),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기금이 5편(7.1%)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국유방건강재단, 국민건강증진기금, 병원, 학회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7. 종양 연구의 주제

종양 연구의 주제는 연구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관연구의 경우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종양연구의 주제 분류는 Malassiotis 등²⁾의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20개 주제, 총 564개의 주제범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사회적 이슈에 관한 개념이 174개(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 88개 (15.6%). 암 간호 서비스 45개(8.0%), 삶의 질 44개(7.8%), 암 예방 29개(5.1%), 환자 정보요구 26개(4.6%), 보완대체요법 25개(4.4%) 순으로 많았다. 심리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응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안 24개, 우울/무력감 20개, 희망 13개, 스트레스 12개 순으로 많았다.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피로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통증 22개, 오심/구토, 식욕감퇴가 19개 순으로 많았다. 암환자 간호서비스 관련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영적 간호중재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관리 중재 9개, 운동중재 8개 순으로 많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만 5년 동안의

Table 4. Outcome variables in experimental research (N=103)

Key concept	n (%)	Outcome variables	n (%)	
Psycho social spiritual factors 40 (38.8)		Anxiety	12 (11.7)	
		Stress	3 (2.9)	
		Depression	3 (2.9)	
		Mental health	3 (2.9)	
		Coping	3 (2.9)	
		Self efficacy	3 (2.9)	
		Fighting spirit	2 (1.9)	
		Hope	2 (1.9)	
		Spiritual well-being	2 (1.9)	
		Forgiveness	1 (1.0)	
		Anger	1 (1.0)	
		Helplessness	1 (1.0)	
		Loneliness	1 (1.0)	
		Social support	1 (1.0)	
Satisfaction of information need	1 (1.0)			
Subtotal	40 (38.8)			
Symptoms 29 (28.2)		Pain	8 (7.8)	
		Fatigue	7 (6.8)	
		Nausea & Vomiting	7 (6.8)	
		Sleep	3 (2.9)	
		Stomatitis	2 (1.9)	
		Anorexia	1 (1.0)	
		Constipation	1 (1.0)	
		Subtotal	29 (28.2)	
		Physiologic factors 15 (14.6)		Physical function
Immunity	5 (4.9)			
Physiological index	3 (2.9)			
Subtotal	15 (14.6)			
Self care behavior		Self care behavior	9 (8.7)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10 (9.7)	

Table 5. Classification of key concept

(N=564)

Theme	n (%)	Frequency of key concept (n)
Psychosocial issues	174 (30.9)	Coping (26), anxiety (24), Depression/hopelessness (20), hope (13), stress (12), burden (11), uncertainty (10), social support (10), recovery (8), self-efficacy (4), discomfort (7), anger (5), family support (4), family function (5), health LOC (3), body image (3), grief (2), burnout (2), suffering (2), self-esteem (1), personality (1), embarrassment (1)
Symptoms	88 (15.6)	Fatigue (26), pain (22), N/V, anorexia (19), sleep (7), nutrition (4), stomatitis (4), side effects (4), infection (2)
Cancer services	45 (8.0)	Psycho social spiritual intervention (16), exercise program (8), symptom management (nutrition, constipation, mouth care, lymph edema: 9), cancer care (2), being of nurse (2), nursing service (7), volunteer service (1)
Quality of life (44)	44 (7.8)	Quality of life (44)
Prevention	29 (5.1)	Breast self examination (14), early detection (15)
Patient information needs (26)	26 (4.6)	Information needs (26)
Complementary intervention	25 (4.4)	Massage (13), imagery (2), music (2), aromatherapy (2), others (6)
Health behaviors	24 (4.2)	Self-care (14), health behavior (6), ADL (3), compliance (1)
Health status	19 (3.4)	Sexual function (8), physical function (8), health status (2), immunity (1)
Spirituality	18 (3.2)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need (17), forgiveness (1)
Cancer biology	16 (2.8)	Immunity (5), epidemiology (7), tumor marker (2), staging (1), genetics (1)
Nursing issues	14 (2.5)	Nursing informatics system (3), job description (4), practice guide books (1), nsg manpower (1), job stress (5)
Experience of patients, nurses and carers	13 (2.3)	Cancer experience (8), caring experience (2), survivors' experience (1), experience of genetic test (1), family's experience (1)
Patient education	10 (1.8)	Cancer education (10)
End of life issues	5 (0.9)	Death (5)
Nursing diagnosis (3)	3 (0.5)	Nursing diagnosis (3)
Administration of chemotherapy (3)	3 (0.5)	Chemotherapy safe management (3)
Research issues	2 (0.4)	Cancer research (2)
Communication (1)	1 (0.2)	Communication (1)
Others	5 (0.9)	Cost (6), medicare (1), hospital system (1), self help program (3)

국내종양간호연구 391편을 분석하였다. 이는 Oh⁷⁾의 1998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만 5년 동안의 종양간호연구 논문 214편에 비해 183%가 증가한 것이며, Choi 등³⁾의 1980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만 18년 동안의 종양간호학연구 논문분석에서 종양간호연구는 1995년 이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암 간호연구의 출처는 학위논문이 59.6%로 학술지 게재 논문 40.4%에 비해 높았으나 Oh⁷⁾의 연구에서 학위논문 57.1%와 Choi 등³⁾의 연구에서 학위논문 81%에 비해 학술지 게재 논문이 증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간호대학원의 일반 석·박사과정 개설이 2003년 이후 거의 없고, 전문 간호사 과정의 대학원으로 전향되어 학위논문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개설된 것과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2001년 이후 종양간호학회지의 발간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이 증가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학술지 게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종양간호학회지로 52편(3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한간호학회지 25.3%, 성인간호학회지 2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Oh⁷⁾의 연구와 Choi 등³⁾의 연구에서 대한간호학회지에 가장 많이 게재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종양간호학회지가

2001년에 창간된 이래 순수 종양간호 관련 연구만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대한종양간호학회지 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기간동안 총 수행된 연구에서 2.3-10.2%의 범위에서 종양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간호학회지에서도 종양관련 연구는 5.1%, 성인간호학회지 9.5%, 대한간호학회지 10.2%, 아동간호학회지 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간호학회지에서 종양관련연구가 적은 것은 소아암 환자 대상의 연구가 적은 것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연구분류 별로는 양적연구가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술적조사연구가 57.7%를 나타냈다. 이는 Oh⁷⁾의 연구결과 양적연구 90.2%, 서술적 조사연구 78.8%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고, Choi 등³⁾의 종양간호연구 분석에서 서술적조사가 69.8%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Chung 등⁶⁾의 종양간호학회지의 종양간호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술적 조사 연구가 76.3%로 유사하였다. 국외 연구 Malassiotis 등⁹⁾의 경우에도 양적연구가 60.2%, 질적 연구가 31.3%로 양적연구가 많았으나 질적 연구가 본 연구 8.7%에 비해 다소 연구가 국내의를 통틀어 대부분의 연구가 서술적조사 연구가 연구는데 이는 연구

의 용이성, 선행연구의 부족 및 연구기금이 부족한 것과 관련 된다고 보여진다. 실험연구는 88편(22.5%)으로 Oh⁷⁾의 연구 21.2%, Chung 등⁸⁾의 연구 23.7%와 유사했으나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험연구의 증가현상은 연구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경우에서 증가되어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34편(8.7%)으로 현상학적 연구가 3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용분석 2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Choi 등³⁾의 연구, Oh⁷⁾의 연구 및 Malassiotis 등²⁾의 연구 결과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연구 대상자는 단일 암환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여러 종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6.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의 용이성과 관련된다고 사료되며 국내의 선행연구 Choi 등,³⁾ Oh,⁷⁾ Malassiotis 등²⁾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암환자 대상의 연구는 14편(3.8%)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국외연구 Malassiotis 등²⁾의 경우는 15.9%로 국내 보다 많았으나 여전히 아동암 환자대상의 연구는 적었다. 이는 아동암환자의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아동암 발생빈도 또한 성인보다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단일 암환자 대상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대상연구가 20.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암발생률 1위가 유방암 National Cancer Information¹⁴⁾이므로 대상자 선정의 용이성과 더불어 암 관리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의 경우 Malassiotis 등²⁾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가 1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혈액 암 환자가 10.5%로 많았고, 유럽 연합국가의 중앙저널에 발표된 연구 Ugolini와 Mela¹⁵⁾에서도 유방암환자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대상자 규모는 본 연구에서 4-1,581명으로 나타났고, 실험연구의 경우는 평균 40.6명, 질적 연구는 평균 10명, 서술적 조사연구는 90-130명이 많았다. 국외의 경우 Malassiotis 등²⁾은 대상자 규모가 1-2,855명이었으며, 질적 연구에서 평균 26명, 양적 연구 평균 204명으로 국내보다 대상자 수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는 대체보완요법 관련 간호중재가 26편(2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호교육 중재 23편(25.6%), 심리사회적정적중재 15편(16.7%)순으로 나타났다. Oh⁷⁾의 연구에서는 간호교육중재가 9편(3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관리 6편(21.4%), 대체보완요법 관련 간호중재가 5편(17.9%)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들어 암환자 증상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마사지 요법이 간호중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대체보완요법에서는 마사지 요법이 15편(5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심상요법, 음악치료, 아로마

치료, 테이핑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의 연구 Malassiotis 등²⁾에서도 이완요법, 마사지, 음악치료 및 치료적 터치가 간호중재로 활용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체보완요법중재는 암환자의 증상관리(통증, 오심, 구토)와 심리적 중재(불안)에 많이 활용되었다. 간호교육중재는 암환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 감소 및 자가간호행위 증진을 위해 수행되었고, 최근 들어 웹기반의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심리사회적중재는 희망, 자기효능감, 용서 중재 등이 활용되었고, 암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간호중재는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38.8%), 그 다음은 통증 및 피로 등 증상관리(28.2%)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환자가 경험하는 주요 심리사회적 문제해결과 증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험연구의 결과변수로 생리적 변수는 14.6%에 불과하여 간호중재의 효과로서 심리 사회적 변수 뿐 아니라 생리적 변수를 포함하여 간호중재의 객관적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연구에서 간호중재연구가 22.5%에 불과하므로 암환자 삶의 질을 위해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종양간호연구에서 연구저자는 교수가 제1저자로 6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호사 17.8%, 대학원생 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lassiotis 등²⁾의 연구에서도 제1저자로 교수가 6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간호사 36.3%인 점과 일치한다.

가장 흔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6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면담 13.8%순으로 나타났는데 Malassiotis 등²⁾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비 수혜 유무는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158편의 연구에서 17.9%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외연구 Malassiotis 등²⁾의 경우 48.4%가 연구비를 수혜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국외의 경우는 중앙전문간호사가 처방권이 있어 학술진흥재단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사료된다. 국내의 경우 연구비 출처는 대학교 연구기금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학술진흥재단 기금은 22.9%, 암 정보추진연구개발사업 기금이 7.1%로 나타나 간호학 연구의 연구기금 지원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종양연구의 주요어를 조사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사회적이슈가 174개(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상 88개(15.6%), 삶의 질 44개(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Oh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국외 북아일랜드 종양간호사 대상의 McIlpatrick 등¹⁶⁾의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이슈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연구주제라는 결과와 유사하며, Malassiotis 등²⁾의 연구에서 증상, 간호이슈, 심리사회적이슈 순으로 나타난 주제와 유사하였다. 심리사회적이슈 카테고리에서는 “대처”가 가장 흔한 개념이었고, 그 다음은 불안, 우울, 희망,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대처”가 가장 흔한 주제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²⁾ 증상 카테고리에서는 피로, 통증, 오심구토/식욕부진 순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외의 연구결과 통증과 피로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²⁾ 통증과 피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술적 연구였고, 소수의 연구만이 증상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감염, 구내염, 영양관리 등은 2-4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져 암환자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증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Lee 등¹⁷⁾의 한국종양간호연구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에서 암 예방에 대한 연구가 제1순위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암 예방 연구는 총 29편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여 암 예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나타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경향과 종양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만 5년간 발표된 학위논문 233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58편, 총 39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종양간호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학위논문이 약간 많았으나 과거에 비해 학술지 게재 논문이 증가되고 있었다.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및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종양간호연구는 전체 논문편수의 2.3-10.2%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는 대부분 서술적 조사연구가 많았고, 대상자 규모는 실험연구의 경우 평균 40.6명, 질적 연구 평균 10명, 서술적 조사연구는 90-130명으로 국외에 비해 다소 적었다.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실험연구가 증가되고 있었고 대체보완요법 관련 중재가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암환자의 심리사회적 영적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이었다. 그러나 간호중재의 결과 변수로 생리적 변수를 측정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국내 대부분의 종양간호연구 주제는 암환자의 증상관리보다는 심리사회적이슈가 더 많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증상관리 및 중재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피로, 통증 외의 다양한 증상연구가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에 있어서도 유방암 환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흔한 암환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연구기금을 받고 수행되어야 하며, 다학제적인 주제로 연구하여 간호학술지뿐 아니라 관련의료 학술지에 발표하여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종양간호연구가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와 임상과 실무의 공동연구, 연구 환경의 개선, 연구기금의 증진 및 종양실무에 연구결과의 적용을 탐구하는 이행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Smith MC, Stullenbarger E.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1-1990. *Cancer Nurs* 1995;18:167-79.
2. Malassiotis A, Gibson F, Kelly D, Richardson A, Dabbour R, Ahmad AM-A, Kearney N. A systematic review of worldwide cancer nursing research: 1994-2003. *Cancer Nurs* 2006;29:431-40.
3. Choi SH, Nam YH, Ryu EJ, Baek MH, Suh DH, Suh SR, Choi GY, Choi KS.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1980-1998. *J Korean Acad Nurs* 1998;28:786-800.
4. Carmen LI, Felis CM, Henk MA. The actual citation impact of european oncological research. *Eur J Cancer* 2008;44:228-36.
5. Lim SO, Hong EY.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5-1997.2. *J Korean Acad Nurs* 1997;27:857-70.
6. Chung BY, Yi MS, Choi EH.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oncology nursing. *J Korean Oncol Nurs* 2008;8:61-6.
7. Oh PJ.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in Korea: 1998-2003. *J Korean Oncol Nurs* 2003;3:112-21.
8. Korean Academy of Nursing. Available at: <http://www.kans.or.kr> [accessed on 5 March 2009].
9.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Available at: <http://www.ana.or.kr/paper/> [accessed on 3 February 2009].
10. Korean Child Health Nursing. Available at: <http://www.child-nursing.or.kr/bulletien5.html> [accessed on 14 March 2009].
11. Korean Women Health Nursing. Available at: <http://women-health-nursing.or.kr/kjwhn/intro.html> [accessed on 11 February 2009].
12. Korean Oncology Nursing. Available at: <http://www.ana.or.kr/paper/> [accessed on 4 May 2009].
13. Korean Nurses Association. Available at: <http://www.Koreanurse.or.kr> [accessed on 16 May 2009].
14.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at: <http://www.cancer.go.kr/cms/index.html> [accessed on 20 May 2009].
15. Ugolini D, Mela GS. Oncological research overview in the European Union. 5-year survey. *Eur J Cancer* 2003;13:1888-94.
16. McIlpatrick SJ, Keeney S. Identifying cancer nursing research priorities using the Delphi technique. *J Adv Nurs* 2003;42:629-36.
17. Lee EH, Kim JS, Chung BY, Bok MS, Song BE, Kong SW, Lee EO. Research priorities of Korean oncology nurses. *Cancer Nurs* 2003;26:387-91.